

-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합니다.
- 이해관계 당사자(입주민, 경비원, 정부)의 상생 모델 개발을 추구합니다.
- 지방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역할모델을 제시합니다.
-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경비노동자 모임을 지원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2차 상생협약 논의



근로자 승인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이해당사자가 협의한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호노력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2억의 추가경정 예산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정 모델 개발 컨설팅 예산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말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2차 상생협약서 체결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주관으로 이해당사자(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주무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가 한 자리에 모여 수차례에 걸쳐 논의테이블을 가졌습니다. 2차 상생협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번 협약의 주

요 내용과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 설정이 아파트단지별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적용,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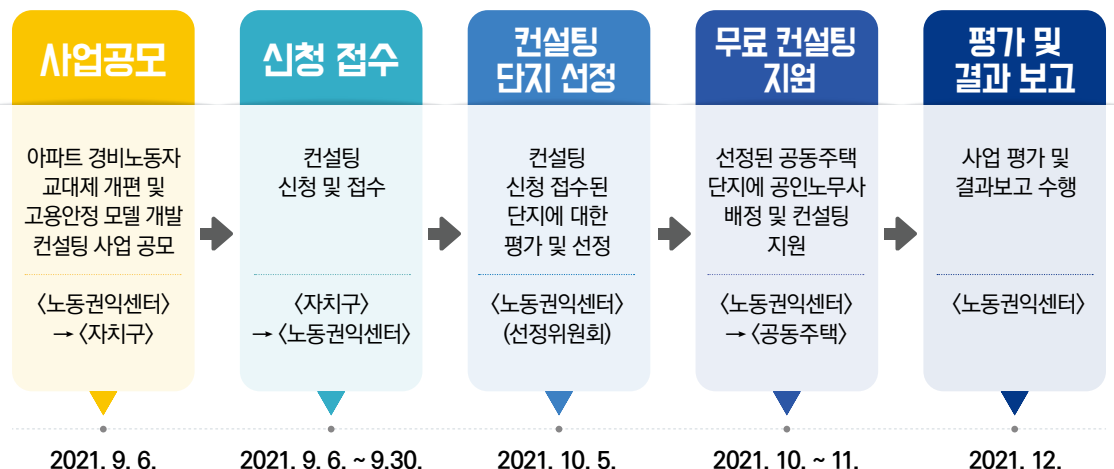
▲ ‘고용 유지,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의 원칙 하에 입주민과 노동자가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모색한다.

▲ 현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감시단속직

또한 9월 6일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재입법 예고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당사자인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이해대변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24시간 교대제 손본다 ... 40개 아파트단지 컨설팅

-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최적의 근무 개편안 제시·임금체계도 재설계.
- 12월까지 입주민-경비노동자-관리사무소 상생협력의지가 높은 40곳 우선 진행.
- 24시간 격일 교대제 → 퇴근형 격일제, 주간 2교대제, 업무별 주·야간 전담제 등.
- 경비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과 장기 근속 문화 정착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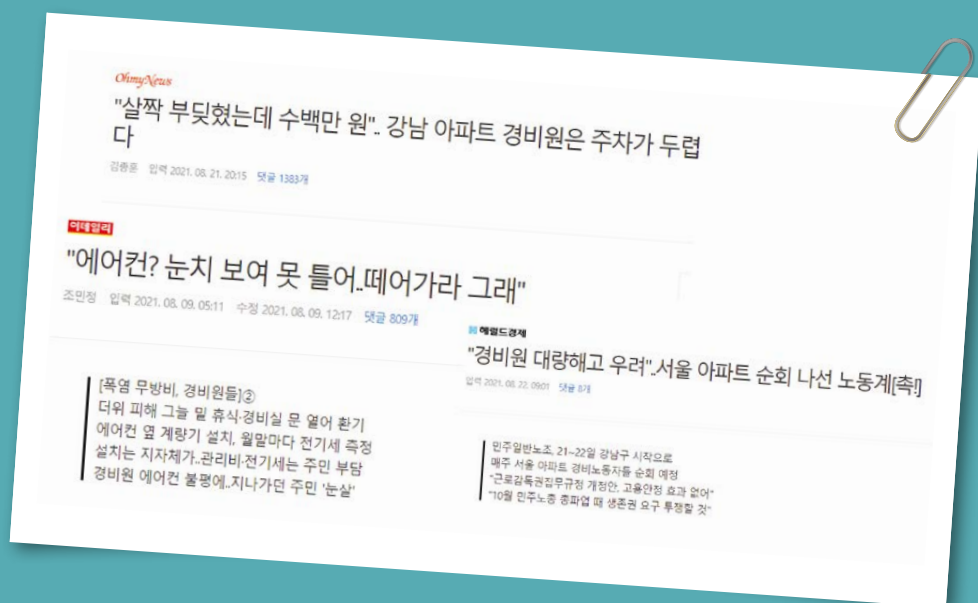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월 24, 25, 27, 30일 4일간 노원지역의 경비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8월 21일과 22일에는 강남구 지역의 경비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지역의 노동자분들은 만났습니다.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돌면서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비노동자 서명 운동과 경비원노동자 소식지를 배포했습니다. 만나는 경비노동자분들 대부분이 취지에 공감해 주셨고 흔쾌히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서명운동을 하면서 기자분들과 여러 경비노동자 분들을 하면서 인터뷰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경비노동자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분들이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문제는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업체를 변경하더라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법안(송옥주 의원 등 57명 발의)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경비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문제는 혼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를 만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가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가입원서

아파트(공동주택)분과

성명		주민번호	-	
직장명		주업무		
실제생일	(양/음)	성별	남 / 여	
자택주소				
직장주소				
휴대폰		고용형태		
조합비	통상임금의1.2%		국세청간소화 서비스신청여부	예 / 아니오
출금은행	은행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조합비 출금(CMS 또는 조합비 사전공제)에 동의하며,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규약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규약 제9조에
의거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서명)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조합비 징수, 노조활동 관련 규약상 권리 및 의무 행사를 위한 각종 투표 및 선거, 노조활동 공지 및 홍보 등 노동조합 활동 관련 목적
-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조합비 출금 계좌번호, 직장명, 조합비, 자택주소, 직장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원 유지기간 및 탈퇴 후 5년 까지.
-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조합비 공제 시 해당 기관, 투표 및 선거관리 회사, 조합비 징수 관련 은행 및 징수대행사(CMS 관리업체)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투표 및 선거권 행사 및 노조활동 공지 등 조합원으로서 권리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

이름 : (서명)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월 14,000원 입니다. 가입 방법은 위의 가입원서를 작성해서 사진 촬영 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대표번호 1566-2716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입과 관련된 문의 1566-2716(담당자 정의석 조직차장)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해고는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계약하고 근무를 하다 1년이 되기 전 계약만으로 해고되거나, 경비업체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거부되어 해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는 중앙관

제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60세 이상의 경비 노동자를 50대 이하로 교체를 하려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입주민들이 현재 경비체제 유지에 더 많이 투표하여 80명이 넘는 경비노동자들의 해고사태는 벌어지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 아파트에서는 이미 자동화 시스템 설치로 경비업체가 변경되면서 해고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1년 이상 계약하여 고용을 안정화한 아파트에만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비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지자체, 국회의원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2019년 11월에는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100명이 모여 서대문구에서 경비노동자 한마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큰 행사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2020년부터 서울지역 절반 이상의 자치구에서 경비노동자 모임을 구성하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조직으로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나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모두가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과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우리 경비노동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서울 어디서나
1566-2716

경비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용불안, 폭력과 폭언, 비상식적 갑질을 겪거나 들으실 경우, 가까운 우리 동네 서울지역 아파트노동자 공동사업단으로 전화주세요. 우리가 뭉치면 우리의 일터가 달라집니다.

자치구	단체명	연락처	자치구	단체명	연락처
강 남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서 대 문 구	서대문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395-0025
강 동 구	강동노동인권센터	010-4347-7103	서 초 구	노동도시연대	010-2943-3191
강 북 구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989-8580	성 동 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02-497-8573
강 서 구	강서구노동복지센터	02-2665-4038	성 북 구	성북구노동권익센터	02-909-3988
관 악 구	관악구노동복지센터	02-886-7900	송 파 구	위례시민연대/동서울시민의힘	010-8401-0830
광 진 구	광진구노동복지센터	02-458-5055	양 천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구 로 구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852-7339	영 등 포 구	영등포산업선교회	02-2633-7972
금 천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용 산 구	용산시민연대	010-8786-4241
노 원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은 평 구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6952-1875
도 봉 구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3494-4400	종 로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동 대 문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중 구	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269-2220
동 작 구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	중 랑 구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496-8477
마 포 구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306-2226	서 울 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1566-2716